

“대회 참가는 수상 여부를 떠나 곧 기술향상과 자기계발을 뜻합니다. 이는 곧 우리 베이커리 업계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대회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베이커리 업계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술 하나만을 밀천으로 지금껏 묵묵히 사회의 한 부분을 지켜왔던 자영제과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유명 식품회사의 자본력을 앞세운 국내 진출, 유통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대형 할인점의 확대, 수입 원부재료값의 상승 등 우리 업계의 어려움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낙심하거나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자영제과점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가장 손쉽게 떠올리면서 동시에 가장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기술개발입니다. (사)대한제과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 맞춤형 기술 세미나에 참가해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보거나 1년에도 몇 번씩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실력을 다른 제과인과 견줘보는 것도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해 처음 실기경연으로 치러진 제3회 한국여성제과기술인경연대회에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여성 제과기술인들의 높은 실력과 다부진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참으로 벅찬 감회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상을 받은 여성 제과인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술인으로서 한 발짝 더 높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대회 참가의 의미는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좋은 작품을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올해부터 지방의 기술인들이 대회에 보다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크림치즈대회와 호두경연대회의 지역별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회에서 동시에 개최된 크림치즈경연대회 예선은 처음 치르는 지역별 예선인 탓에 지역 제과인들의 참여가 기대보다 저조했습니다. 지역별 예선에 참가할 인원은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방 제과인들의 참여가 저조할수록 지방과 서울의 기술 편차를 줄인다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한 지역별 예선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터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는 5월 30일에 있을 호두경연대회 지역별 예선에서는 좀 더 많은 지역 제과인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어려운 마당에 대회 준비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실 제과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제과인을 위한 행사입니다.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기술향상과 자기계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에 대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시야를 한층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술수준을 높여 점포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대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자신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승리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입니다.

(사)대한제과협회 기술분과위원장 안창현